

옵트론텍(082210), 우리사주조합 33만주 자사주 배정 완판

- ▶ 2019년 재도약의 원년 지속성장 확신 높아 우리사주 조합원 자발적 참여 열기 뜨거워~
- ▶ 향후 성장가속화 및 시황회복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로 임직원 애사심에 보답할 것!!!

<2018-12-24> 옵트론텍 우리사주조합이 실시한 임직원 대상의 자사주 배정이 완판됐다.

카메라 광학 필름필터 1위기업 옵트론텍(082210, 대표이사 홍사관, 임지윤)은 24일, 우리사주조합이 진행한 자사주 33만주에 대한 조합원 대상의 청약이 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100% 배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향후 조합원들의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된다.

옵트론텍 우리사주조합 조합장은 “지난 7월부터 주가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33만주를 취득한 바 있었고, 최근 조합원들 스스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 고취와 임직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자사주 배정 청약에 동참하기로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자사주 배정 완판을 계기로 옵트론텍 임직원은 회사의 지속성장과 성장가속화를 향한 공통의 목표에 무한신뢰라는 응원가를 불러준 셈이고, 회사는 임직원 복리 증진과 주주가치 제고로 이번 임직원이 보여준 애사심에 적극 화답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자사주 매입 평균단가가 현 시세(21일 종가기준 4,430원)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 조합원의 동참열기가 뜨거웠고, 특히 경영진(집행임원)의 솔선수범이 조합원의 동참열기를 극대화하는 견인차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옵트론텍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들이 보여준 무한신뢰는 2019년 창립 30주년을 맞은 당사의 성장가속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듀얼이상의 멀티카메라가 전세계 보편화되고, 4차 산업을 연계한 3D센싱의 높은 기술수요가 당사의 수혜로 직결되어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옵트론텍은 전세계 광학부품 분야 글로벌 최강자로 주력아이템인 카메라용 필터와 렌즈의 고객사 수주 가속화로 양산과 공급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자료문의 : 옵트론텍 양승대 팀장 (031- 8038-4720)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2-6011-2000 #120)/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2-6011-2000 #121)